

# 臺灣海峽兩岸의 經濟·貿易關係 發展 및 制限\*

魏 艾

- |                          |                            |
|--------------------------|----------------------------|
| I. 머리말                   | IV. 台灣海峽 兩岸의 經·貿<br>政策의 動向 |
| II. 台灣海峽兩岸의 間接貿<br>易의 發展 | V. 經·貿關係發展의 影響<br>과 制限     |
| III. 台商(台灣商人)의 大陸<br>投資  | VI. 結 論                    |

## I. 머리말

1979년 中國大陸이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한 이래 臺灣海峽兩岸의 經·貿關係는 30여년 동안의 경직된 국면에서 벗어나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 후 中華民國 정부의 中國大陸에 대한 점진적인 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兩岸의 민간교류 및 經·貿 往來는 더욱 활발해 졌다. 한 발 더 나아가 금년 1월 臺灣프라스틱 사장 王水慶의 中國大陸行 및 海滄投資計劃의 폭로로 이 놀라운 사실은 일련의 반응을 불러 일으켜, 朝野 各계는 국내투자 환경의 약화를 우려한 나머지 적극적인 兩岸의 교류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현재 臺灣의 大陸에 대한 經·貿政策에 큰 충격을 주게 되어 또 한 차례의 새로운 '大陸熱'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비록 금년 봄부터 일기 시작한 '大陸熱'이 中沙(臺灣과 사우디아라비아의 外交斷絶)관계 등의 외교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制限政策으로 잠시 냉각되기는 했지만 국제 政·經 정세의 돌연한 변화로 인한 世界經濟의 위축

\* 이 논문은 第11次 韓中學術會議에서 主題發表된 것임.

과 더우기 국내 경제환경 또한 단기간내에 결코 호전될 조짐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大陸과의 經·貿往來는 이미 經濟領域의 확대를 해결하는 중요한 選擇策略의 한 방법이 되었다.

더욱 분명한 것은 과거의 발전 과정과 최근 정세의 변화로 볼 때, 현재의 臺灣海峽兩岸의 經·貿往來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추세가 되었고, 兩岸 經·貿關係 또한 中華民國 政府의 大陸政策과 對外關係와 맞물려 政·經發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本論文의 주요 목적은 근래 臺灣海峽兩岸의 經·貿關係 發展의 최근 변화와 政策動向 및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制限 등에 대해 종합적인 整理를 함으로써 하나의 참고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 II. 臺灣海峽兩岸의 間接貿易의 發展

1979년 中國大陸이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했을 때 홍콩을 통한 臺灣海峽兩岸의 間接貿易 총액은 7천 7백 8십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88년에는 27억 2천만 달러에 달하여 10년간 35배나 증가하였다.<sup>1)</sup> 그 중 大陸에 대한 臺灣의 間接貿易 수출액은 22억 4천 2백만 달러로 臺灣의 대외무역 수출총액의 3.7%에 달하며, 大陸에 대한 臺灣의 수입액은 4억 7천 8백만 달러로 臺灣 수입총액의 1%에 불과하다.(表 1과 表 2 참조)

1989년 臺灣海峽兩岸 經·貿關係의 發展은, 비록 6·4 천안문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접무역액 성장율은 감소하였지만 그 액수는 여전히 증가하여 34억 8천 3백만 달러로 臺灣의 대외무역 총액의 2.94%에 달하였다. 그 중 大陸에 대한 臺灣의 수출액은 28억 9천 6백만 달러로 臺灣의 대외무역 수출총액의 4.38%를 차지하며, 大陸에 대한 臺灣의 수입액은 5억 8천 6백만

1) 臺灣海峽兩岸의 무역교류에는 제 3국가나 지역을 통한 間接貿易과 밀수활동 등 2 가지를 다 포함하지만 현재의 主要間接貿易은 홍콩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따라서 이것으로 分析의 근거를 삼는 것이다. 밀수활동에 대해서는 資料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本論文의 分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달러로 臺灣의 대외무역 수입총액의 1.12%를 차지하였다.(表 1과 表 2 참조) 더욱 분명한 것은 大陸에 대한 間接貿易이 臺灣의 대외무역에 있어 날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 10년 사이 홍콩을 통한 臺灣의 大陸 간접무역 累計差額이 74억 9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表 一> 1979~90年 台湾의 홍콩을 통한 對大陸 間接貿易 統計

(單位: 百萬달러 %)

年別	台灣의 間接貿易 輸出		台灣의 間接貿易 輸出	
	金額(百萬달러)	成長率(%)	金額(百萬달러)	成長率(%)
1979	21.47		56.29	
1980	234.97	1,031.83	76.21	39.86
1981	384.15	81.08	75.18	9.35
1982	194.45	-42.08	84.02	27.89
1983	157.84	- 2.84	89.85	28.00
1984	425.45	170.73	127.75	42.92
1985	986.83	131.36	115.90	-9.51
1986	811.33	-17.87	144.22	24.43
1987	1,226.53	51.17	288.94	100.35
1988	2,242.22	82.81	478.69	65.68
1989	2,896.49	29.18	586.90	22.60
1989 (1-8月)	1,952.96	54.15	393.90	30.42
1990 (1-8月)	2,023.29	3.60	466.88	18.64

資料: 「貿易快訊」, 1990年 10月 22日, 第 8版.

1990년 1월부터 8월까지, 兩岸의 홍콩을 통한 間接貿易總額은 24억 9천만 달러이고, 작년 동일기간과 비교할때 6.12%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수출액은 24억 2천 3백만 달러로 작년보다 3.6%나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억 6천 7백만 달러로 작년 보다 18.6%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表一참조) 통계에 의하면 1990년 한해 臺灣海峽兩岸의 間接貿易額이 4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表二> 海峽兩岸의 貿易依存程度(1979~1990年)

(單位: %)

項目 年別	台灣의 大陸수출이 台灣 총수출액에 차 지하는 비중	台灣의 大陸으로부터 수입이 台灣총수입액 에 차지하는 비중	大陸의 台灣수출이 大陸 총수출액에 차 지하는 비중	大陸의 台灣으로부터 수입이 大陸 총수입액 에 차지하는 비중
1979	0.13	0.38	0.41	0.14
1980	1.19	0.39	0.42	1.20
1981	1.70	0.35	0.34	1.75
1982	0.88	0.44	0.38	1.01
1983	0.63	0.44	0.40	0.74
1984	1.40	0.58	0.49	1.55
1985	3.21	0.58	0.42	2.34
1986	2.04	0.60	0.47	1.89
1987	2.30	0.84	0.73	2.84
1988	3.70	0.96	1.01	4.06
1989	4.38	1.12	1.19	4.90
1990 (1~6月)	4.64	1.29	1.36	6.41

資料: 經濟部國際貿易局, 「一九八九年中共經貿조치 및 對外貿易情勢分析」,  
民國 79年 10月, p.117.

간접무역의 商品構造面에 있어 국제 무역 표준분류(SITC)로써 분석해 보면, 臺灣이 大陸으로 수출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은 第 6類(대부분 재료 분류에 따른 製造品)로 13억 3천 7백만 달러에 달하며, 그 중 방직가공 원료 및 신발류 재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은 第 7類(機械 및 運輸設備)로 9억 5천 1백만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 전자부속·기계설비 및 자전거 부속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번째 第 5類(化學品 및 열거할 수 없는 有關產品)로 그 수출액은 3억 2천 5백만 달러에 이른다.(表三참조)

<表 三> 台灣의 香港을 통한 對大陸 간접무역 分類統計表(1989/ 1988)

(單位: 千달러)

國際貿易標準分類(SI-TC)大類	商 品 類 別	台灣商品의 大陸 간접수출		大陸商品의 台灣 간접수입	
		金 額		金 額	
		1989	1988	1989	1988
0	식품 및 主要 食用으로 공급되는 살아있는 가축	36,096	16,348	58,531	50,429
1	飲料 및 담배류	12	45	342	1,789
2	非食用原料 혹은 연료用 원료	56,105	44,962	184,729	186,426
3	광물연료, 운활유類 및 有關物質	342	679	5,605	3,251
4	動植物 油脂	80	181	982	2,108
5	化學品 및 이름을 나열할 수 없는 有關 產品	325,865	259,962	70,771	53,572
6	材料 分類에  따른 製造品	1,337,789	985,848	126,264	130,286
7	機械 및 運輸設備	951,095	797,029	57,067	28,585
8	잡다한 項目의 製品	180,690	131,679	81,844	21,779
9	其他特殊商品 項目	8,405	5,482	759	416

資料: 經濟部國際貿易局, 「一九八九年 中共經貿 조치 및 貿易情勢分斷」, 民國 79年 10月, p.84와 p.90.

臺灣이 香港을 통해 大陸으로 수출하는 商品은 거의 모두 工業用 原資材 및 부속들로 그 항목은 대단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항목은 인도섬유사, 布, 기계설비, 전자부속 및 플라스틱 원료 등 4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個別 商品項目으로 예를 들면, 1989년 臺灣이 大陸으로 수출한 20개의 주요항목 商品 중 액수가 가장 많은 3가지 항목 모두 紡織品에 속하며 이 3항목의 개별상품 수출액 합계는 臺灣이 大陸으로 수출하는 수출 총액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제 4위를 차지한 商品은 중합물(Polymerization and copolymerization)이며 이는 3.1%를 차지하고 있고, 제 5위는 합성수지와 그 중합물로 2.8%를 점하고 있다.(表 四참조)

1989년, 臺灣이 香港을 통해 大陸으로 수출한 20개 항목의 商品 총계는

14억 8천 8백만 달러로 大陸으로 수출한 총액의 51.7%에 이른다.(표 四 참조)

<表 四> 台灣의 홍콩을 통한 大陸 間接輸出商品의 主要項目

(單位: 千달러, %)

順 序	國際貿易標 準分類號碼 (SITC)	商 品 名 稱	1988		1989	
			金額(千달러)	大陸 間接 수출총 액에 대한 비중	金額(千달러)	大陸 間接 수출총 액에 대한 비중
1	65315	生絲상태의 합성 섬유포	261,434	11.7	289,833	10.0
2	65732	인조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벽 포, 織布	125,417	5.6	175,716	6.1
3	65510	合成섬유 針織布	88,809	4.0	118,299	4.1
4	58343	Polymeriation and Cop- olymerization	65,850	2.9	89,187	3.1
5	58331	Polystyrene and its Copolymere	70,394	3.1	82,168	2.8
6	77610	除擬財線式 TV와 영상관	74,489	3.3	81,128	2.8
7	61140	牛類皮革等	39,170	1.7	78,728	2.7
8	72842	고무, 인조플라스틱용 공업기 계 및 그 용구	73,654	3.2	77,227	2.7
9	76493	TV무선방송에 속하는 부속 및 실험기	41,104	1.8	61,218	2.1
10	61230	모든 신발원료 및 신발몸체 부분	21,799	1.0	60,577	2.1
11	77311	결연전선, 케이블 및 유사품	39,867	1.8	51,359	1.8
12	72480	皮革을 무드질하는 기계	45,348	2.0	48,794	1.7
13	65148	棉狀합성섬유 혼방사	35,849	1.6	43,699	1.5
14	65144	가공을 거친 실상태의 섬유	30,736	1.4	39,372	1.4
15	72848	이름을 나열할 수 없는 기타 기계	23,857	1.1	34,236	1.2
16	89949	우산 및 양산 부속	19,589	0.9	34,188	1.2
17	77129	이름을 나열할 수 없는 전 력기계 부속	35,412	1.6	34,105	1.2
18	65341	棉狀合成섬유상태의 혼방 織織布	25,609	1.1	34,039	1.2
19	78539	자전거 부속	17,658	0.8	29,871	1.0
20	58231	Alkyds and other Pol- yesters	22,339	1.0	26,526	0.9

資料來源: 香港政府統計處

간접수입한 상품 구조면에서 國際貿易 標準分類(SITC) 한자리수 상품 분류로써 분석해 보면, 1989년 臺灣이 大陸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第三類(非食用 혹은 燃料용 원료)로 1억 8천 4백만 달러이고, 그 중 주요품목은 한약재·모피·점토 등이다; 두 번째는 第六類(대부분 재료에 따라 구분된 製造品)로 1억 2천 6백만 달러이며, 그 중 綿紗·면포·석철과 가죽구두가 主를 이룬다.(表 三과 表 四참조)

個別商品項目에 있어서는 한약재가 가장 많이 차지하여 臺灣이 大陸에서 수입한 총액의 14.5%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의 羽毛로 8%를 차지하며 생선 혹은 냉동어가 5.4%, 綿紗가 3%를 차지하고 있다.(表 五참조)

1989년 臺灣이 香港을 통해 大陸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중 순서별 20개 항목 상품총계는 3억 8천만 달러로 大陸으로부터 수입한 총액의 47.9%를 차지한다.(表 五참조)

<表 五> 大陸商品の 香港을 통해 台灣으로 간접수입되는 主要 商品 항목

(單位: 千달러)

順序	國際貿易標準分類號碼(SITC)	商品名稱	1988		1989	
			金額(千달러)	총간접수입액의 점유비중(%)	金額(千달러)	총간접수입액의 점유비중(%)
1	29240	한약재	106,467	22.2	84,874	14.5
2	29196	羽毛	39,035	8.1	47,079	8.0
3	03410	生鮮(살았거나 혹은 죽은 것) 혹은 냉동어	20,176	4.2	31,936	5.4
4	65311	棉花爲主의 혼방원료인 梭織布	9,543	2.0	17,933	3.0
5	75990	사무실용 기계 부품(전자계산기爲主)	9,568	2.0	9,849	1.7
6	84513	합성섬유를 이용하여 針織으로 짠 모자가 달린 上衣, 원피스 등	470	0.1	8,970	1.5
7	27821	점토	6,375	1.3	8,501	1.4
8	8994	우산 및 양산	1,516	0.3	7,357	1.3
9	52257	人造玉	5,753	1.2	7,121	1.2
10	67162	砂鐵	5,443	1.1	6,698	1.2

順序	國際貿易標準分類號碼(SITC)	商品名稱	1988		1989	
			金額(千달러)	총간접수입액의 점유비중%	金額(千달러)	총간접수입액의 점유비중%
11	59110	살충제	4,234	0.9	6,528	1.1
12	71611	직류 전동기와 발전기	2,308	0.5	6,163	1.1
13	26830	다듬지 않은 야생 동물毛	4,656	1.0	5,782	1.0
14	53111	합성유기 염료	3,663	0.8	5,689	1.0
15	61140	기타 牛類皮革	7,033	1.5	5,255	0.9
16	6516	棉狀合成섬유중 85% 이하의 棉 爲主 혼방사	6,222	1.3	4,457	0.8
17	89424	성인 혹은 아동용 완구	613	0.1	4,443	0.7
18	65131	每kg 單絲 길이 4000m 를 넘지 않는 綿絲	3,854	0.8	4,395	0.7
19	05420	겉질을 벗겨 말린 콩 종류	5,628	1.2	4,233	0.7
20	26310	原棉	317	0.1	4,220	0.7

資料來原：香港政府統計處

### Ⅲ. 臺商(臺灣商人)의 大陸 投資

政府는 臺灣商人의 大陸投資를 불허하였지만 과거 몇 년간 줄곧 臺商은 여전히 소규모적이고 은밀하게 그리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大陸에 투자하였고 投資件數 및 規模 또한 신속히 확대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87년 말까지 臺商이 大陸에서 체결한 投資項目은 80項에 이르며 投資協議金額은 약 1억 달러에 달했다; 1988년 말까지 投資項目은 430項으로 증가되었고 協議金額누계는 6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 중 상당부분이 1987년의 親知訪問開放과 1988년 7월 中國大陸이 「臺灣동포 투자촉진을 위한 규정」을 발표한 후 지속적인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臺灣의 大陸投資는 점점 公式化·公開化되고 있으며 투자규모와 투자영역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89년 「천안문사건」 발생 후, 서방국가의 對中國大陸 經濟製劑措置 및 외국상인들의 大陸정국에 대한 믿음 감소로 그들의 大陸投資가 빈번히 중단되거나 심지어 철회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臺商의

大陸投資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1989년 말까지 臺商의 大陸投資項目 累計는 1천項에 달했으며, 協議投資金額도 1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表六참조) 한편 금년 연초에 불기 시작한 「大陸熱」은 大陸투자에 대한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금년 초 4개월간 廈門市와 臺商이 체결한 投資協議는 53項에 이르며 작년 동일 기간과 비교할 때 37%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협의금액도 1억 3천만 달러에 육박하여 1.35배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sup>2)</sup>

<表六> 臺灣의 大陸投資現況統計表

(單位: 項, 億달러)

地區	1987年底止		1987年底止		1987年底止		1990年	
	項目	協議金額	項目	協議金額	項目	協議金額	項目	協議金額
全大陸地區	80	1.0	430	6.0	1,000	10.0		
福建省	42	0.5	238	2.32	500			
廈門市	20	0.38	100	1.49	238	6.29	290	7.59(a)
泉州市							133	1.5 (a)
廣惠省澤州市					154	1.3		
廣州市					79	1.4		
北京市			22	0.84		1.4		
寧波市				0.17				
廣西省					46	0.53		
山東省						0.80		
海南省							55	0.28(b)

註: (a)1990년 4月末까지 (b)1990年 5月末까지

資料來源: 1. 經濟部投資事務處, 中共의 外資利用 상황(民國 79년 8월) p.35.

2. 經濟部投資事務處, 廈門經濟特區의 透視(民國 79년 10월) p.7-8.

3. 中華經濟研究院, 大陸投資 환경과 兩岸의 잠재 投資關係에 관한 研究(民國 78년 10월) p.116.

4. 李華夏, 史惠慈, 現段階 海峽兩岸 貿易投資 상황에 관한 研究(大陸投資 및 貿易에 관한 研討會 論文), 民國 73년 6월, p.17.

5. 陳金柏, 「泉州市의 積極적인 대만동포 투자유치 실험풍(新熱風)」, 經濟新報, 1990년 6월 18일, p.30-31.

6. 胡劍偉, 「台商投資 “大陸熱”에 대한 思考」, 瞭望週刊(海外版), 1990年 6月 11日, p.22-23

7. 文匯報, 1990년 5월 28일, 第 3版.

8. 星島日報, 1990년 6월 16일, 第 6版.

2) 「臺灣의 福建省 投資 研究」, 文匯報(홍콩), 1990년 5월 28일, 제 3판.

臺灣商人的大陸投資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 보면 그 집중현상을 잘 알 수 있다. 주요 집중지역은 廈門(臺灣 상인 투자총액의 약 40%), 深圳(10%), 廣州(10%), 珠海, 泉州, 福州, 海口, 寧波, 南京, 大連, 青島 등의 沿海 開放都市 혹은 經濟特區內에 한정되어 있다. 투자액 분포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臺商 投資를 끌어들이는 곳은 福建으로 약 60%를 차지하며, 廣東이 그 다음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10%로 海南, 浙江, 上海, 山東, 遼寧, 天津 등 沿海省市이며, 內陸 省으로는 安徽, 江西, 四川, 湖南, 湖北으로 약간의 臺商 투자기업이 있지만 점유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sup>3)</sup> 투자항목 종류별로 보면, 우산류·신발류·손가방·철물·장난감·방직·운동기재·기성복·플라스틱 제품·전자·고무·건축재·석화제품 등이 있다. 한편 비제조업 부문에서 관광·무역·여관·수력댐·부동산·교통·골프장 등이 있다. 上述한 發展狀況 외에도 臺商의 大陸 投資에 몇가지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규모는 中小型 위주이다. 臺商의 투자기업의 평균 단일항목 투자액은 백만달러 정도이고 그 중 90% 이상이 1백만 달러 미만의 中小型 항목이고 대형항목에 속하는 것은 약 10% 정도이며 투자액이 14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 정도이다. 廈門·廣州·上海·北京 등 도시의 臺商 투자규모는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평균 단일 항목 투자액이 약 2백만 달러이고 그외 其他地區의 투자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으로 약 5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兩岸 經·貿關係가 날로 밀접해짐에 따라 투자규모도 점차 大企業의 참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1989년 臺灣 商人的 福建 省 투자액은 평균 每 항목당 80만 달러였는데 1990년 상반기에는 200여만 달러로 증가하였다.<sup>4)</sup>

둘째, 투자형식이 多樣化되고 있지만 獨資經營方式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초기 臺商의 大陸投資는 試驗·踏查의인 성격이 강하여 대부분 원료가

3) 李非, 「臺商의 大陸投資 形態分析」, 瞭望週刊(海外版), 1990년 6월 4일, p.21.

4) 胡創偉, 「臺商의 投資-‘大陸熱’에 관한 思考」, 瞭望週刊(海外版), 1990년 6월 11일, p.22.

공·합작생산 등의 투자방식을 취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점차 獨資經營方式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廈門·深洲는 특히 獨資經營方式으로 투자하여 臺灣 投資企業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合資 혹은 合作經營 위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의 珠江三角洲와 閩南金三角地帶에 많은 臺商 투자기업들이 大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원료가공과 부속조립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된 產品은 대부분 해외로 판매되고 있다<sup>5)</sup> 臺商 投資企業의 大陸에서의 주요 經營方式은 '臺灣에서 주문을 받고 大陸에서 가공하여 홍콩을 통해 國外로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大陸의 주요 역할은 노동과 토지와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臺商은 資金과 기술 그리고 설비를 준비하는 것 외에 경영과 관리, 원자재 수입 및 해외판매 시장을 책임진다.

셋째, 投資期限이 長期化 될 추세이다. 이전의 臺商 경영전략의 대부분은 공장부지를 임대받아 간단한 조립가공에 종사하여 2, 3년 기간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短期投資 위주였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10, 20년의 장기투자계획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臺商이 大陸에서 공장부지 혹은 토지사용권을 구매하여 공장을 세우고 있고 심지어는 대규모 토지를 임대받아 스스로의 책임하에 개발, 건설하는 계획도 제시되고 있다. 이런 장기적 투자경향은 단기적인 원료가공, 補償貿易 및 기타 단기영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 또한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IV. 臺灣海峽 兩岸의 經·貿政策의 動向

비록 과거 10여년간 臺灣海峽 兩岸의 經·貿關係는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쌍방의 政治的인 立場下에서 설정된 經·貿政策은 오히려 間接貿易의 起伏의인 파동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經·貿關係의 進一步한 발전을 제한하였다.

5) 註 (3)과 동일.

經濟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臺灣과 大陸의 經濟資源 구성은 상호 필요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臺灣은 資金·기술과 관리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大陸은 천연자원,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기초하여, 臺商이 大陸에서 經·貿活動에 종사하게 된 주요 動機는 근래에 와서의 임금인상·환경보호에 대한 의식 대두 및 臺幣切上の 압력때문이며, 따라서 大陸이 저렴한 노동력과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아울러 大陸을 통해 해외 판매시장을 다원화하며 大陸의 낙후된 생산설비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大陸은 資金과 기술을 끌어 들여 經濟現代化 促進을 희망하고 있고 특히 과거 수년간 中國大陸이 沿海 加工工業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바 臺商들이 이러한 것을 제공·협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兩岸 經濟는 相互補完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제시장에서 臺灣經濟는 여전히 勞動集約 產品의 수출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경제구조를 아직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中國大陸은 점차 臺灣의 경쟁상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補完性과 競爭性이 병존하는 經·貿關係로 인해 臺灣이 大陸에 대한 經·貿政策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더욱 심한 제한은 오히려 정치적인 측면에 있다. 中國大陸은 일찌기 「對臺」政策에서 완화 조짐을 보인적이 없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못한다」라는 論調를 계속 堅持하고 있고 더욱이 中國大陸은 臺灣의 經·貿政策에 대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정치색채가 정책의 「緊」과 「鬆」의 반복으로 兩岸의 經·貿往來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한편으로, 臺灣으로 하여금 大陸 經·貿政策의 제정에 있어 「國家安全」과 「經濟利益」사이의 모순에 빠지게 함으로써 兩岸 經·貿關係 발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 臺灣의 大陸 經·貿政策

비록 臺灣이 大陸과의 관계에서 줄곧 「不接觸·不談判·不妥協」의 3不政策을 견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환경의 고려하에 이미 점진적으로 大陸에 대한 民間交流, 특히 문화와 經·貿往來에 대해 제한의 폭을 낮추고 있다.

1984년 臺灣이 홍콩 및 마카오를 통해 大陸產品을 수입하는 제한의 폭을 낮춘 것은 사실상 間接的으로 민간이 大陸과 무역을 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1985년 7월, 臺灣은 3항의 基本原則을 선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大陸과 직접통상은 하지 않는다. 둘째, 臺商은 大陸의 機關 혹은 政府人員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間接貿易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1987년 이래, 臺灣은 大陸에 대한 經·貿政策에서 획기적인 조치로서 大陸 農工原料의 간접수입 제한 폭을 낮추고, 친지방문을 개방했으며, 과거 兩岸貿易을 배척하는 태도를 변경하였으니, 이 모두 經濟要素로서 兩岸 經·貿關係의 開放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1987년 8월, 臺灣은 29항의 大陸 農工原料의 간접수입을 개방하였고, 11월에는 친지방문을 개방하였다.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大陸 農工原料의 수입을 개방하여 현재 개방항목 총수는 이미 155항에 달하고 있다.

1988년 5월, 법무부는 「臺灣地區와 大陸地區의 人民關係 條例」를 연구하여 兩岸人民의 사무를 처리하는 준칙을 만들었다. 아울러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에 행정원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외에 경제부는 條例의 授權에 근거하여 「大陸地區에 대한 간접수출물품 管制 法案」과 「大陸地區에 대한 投資와 技術合作 管理 法案」을 연구하였고, 이들 법규 및 기타 행정규정에 근거하여 臺灣은 현재 大陸에 대한 經·貿政策의 원칙을 삼아 구체적인 정책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原則面에 있어, ① 國家安全과 經濟利益의 平衡原則 적용 ② 간접적으로 허락하나 직접적으로는 불허하는 원칙 적용 ③ 政府許可의 원칙 적용 등이다. 한편 具體的인 政策을 살펴보면, 첫째, 正式許可된 67개 업종 3353항의

產品은 간접적으로 大陸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業種別·產品別 주요내용을 보면, 傳統工業·소비성 전자 상품과 농업기계·선박해체 등 勞動力集約型·產業聯關性이 낮은 부문 및 臺灣에서 發展優勢를 갖추지 못한 產品項目들 등이다. 둘째, 투자규모에 있어서 1백만 달러 이하는 事後에 設備報告를 하면 되고 1백만 달러 이상은 경제부 투자 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셋째, 「條例」시행전에 허가를 받아 이미 大陸地區에 투자한 臺商은 「條例」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제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물품 수출방식은 반드시 國外地區를 통해서 해야 하며, 賣買場所는 大陸地區 이외이어야 하며 정부가 直接輸出을 허가한 국가나 혹은 地區의 商人이어야 한다. 다섯째, 間接投資와 貿易規定을 어기고 벌금 3백만원(臺幣) 이상 1천 5백만원 이하의 행정처벌에 처한다. 이외에 경제부가 최근에 공포한 大陸經·貿에 관한 기타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大陸 勞動者의 수입을 금한다. 둘째, 臺商이 大陸에서 위탁가공한 產品 혹은 생산한 半製品은 간접방식으로 臺灣에 다시 판매할 수 있게 개방하였다. 셋째, 大陸 시멘트 및 가공한 목재의 간접수입을 개방하였다.

이같은 원칙과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許可制度의 설정이다. 결국 大陸과의 經·貿政勢를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신중을 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許可原則의 시행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정부가 大陸經·貿政策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을 불식시킬 수가 있었다.

종합하면, 臺灣의 大陸經·貿政策은 비록 다소 신중하고 保守的이지만 오히려 정세를 깊이 고려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調整과 開放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政治立場」과 「安全考慮」에 기초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臺商의 大陸經·貿活動에 제한을 가하였지만, 그 단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신중을 꾀하는 태도는 오히려 兩岸經·貿關係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大陸의 臺灣에 대한 經·貿政策

臺灣의 大陸에 대한 經·貿政策이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開放이 특징인데 반해 大陸이 臺灣 經·貿政策은 「鬆」·「緊」의 불안정한 변동을 보이고 있어 兩岸 經·貿關係에 기복적인 파동을 조장하고 있다.

臺灣의 大陸에 대한 間接輸出로써 예를 들면, 1978-80년 中國大陸의 對外開放 초기에 臺灣의 大陸에 대한 間接무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1981-83년 사이에는 그 성장속도가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마이너스 현상까지도 나타났다. 1984년 후, 또 한차례의 기복적인 파동현상이 나타났는데 (표 1 참조), 이것은 臺灣의 大陸 經·貿政策의 점진적인 개방 및 大陸 내부의 總體經濟政策의 변경과 경제형세의 변화 등이 이같은 파동을 유발시킨 요소이지만, 大陸의 臺灣 經·貿政策의 不安定性이 오히려 가장 큰 주요 요소라 볼 수 있다. 다음이 이 사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① 1980년 3월, 中國大陸 상무부는 「臺灣 產品 購買에 관한 補充 規定」을 발표하여, 臺灣產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은 그 수입에 국내무역과 같은 면세혜택을 주며, 臺灣商人이 大陸物品을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20%이하의 관세로 優待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1년 5월, 中國大陸의 국무원은 각 세관·수출입회사·省市 해외무역부에 승을 내려, 臺灣產品의 優惠資格도 취소하였다.

② 1984년 4월, 中國大陸은 무역체제개혁을 진행하여 무역권한을 지방정부와 기업에게 넘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외화관세도 완화하여 수입을 확대하여 大陸의 貿易收入은 臺灣으로부터의 間接무역수입을 포함하여 신속히 증가하였다. 한편 1987년 7월, 中國大陸 국무원은 「通知」를 발표하여 臺灣地區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許可證 管理制度를 시행하고 아울러 반드시 경무부로 보고하여 批准하도록 하였다.

③ 1988년 말, 中國大陸은 경무부에 「對臺 經貿關係司」를 증설하여 전문적으로 臺灣 經·貿政策을 연구 재정토록 함과 아울러 날로 증가되는 臺商

商投資 및 兩岸 무역사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또한 1989년 3월, 中國大陸의 국무원은 10조 규정을 제정하여 해외교포·홍콩·마카오·臺灣 동포에게 물자기증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필요한 生産原料와 外貨寄贈을 격려하였다.

臺商投資를 유도하기 위해 1988년 7월 「臺灣同胞 投資 격려 규정」 22조를 발표하여 臺灣同胞에 대해 優惠措置를 취함으로써 다른 외국상인과 구분하고, 臺商의 투자자산에 대해 國有化를 실행하지 않으며, 涉外經濟規定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을 규정했는가 하면 1989년 3월에, 中國大陸의 국무원은 臺商의 大陸投資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여 臺商에게 특별 우혜조치를 약속했으니 예를 들면, 臺商들의 沿海地區 土地開發 經營權 및 기업주식·채권·부동산 구매권 등에 투자를 승인하였다. 또한 1989년 5월, 福建省에서 요청한 「臺商 投資區」 설치에 관한 보고를 정식으로 비준하였다. 요청한 2개의 投資區는 다음과 같다; ①廈門地區: 廈門經濟特區를 확대하고 海創·吉林 2개의 특구를 개발하여 臺商 投資區로 삼는다. ②福州地區: 馬尾開發區를 확대하여 臺商의 投資區를 삼는다.<sup>6)</sup> 등이다. 그 후 中國大陸은 福建省 湄州灣地區를 臺商의 대형 중공업 投資地區로 다시 제공하고, 海南省 海口와 文昌등을 臺灣投資區 및 臺灣工業區로 개발할 것을<sup>7)</sup> 결정하였다.

근래에 와서 中國大陸이 비록 臺灣과의 經·貿에 관련된 법령과 정책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법령과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缺點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책에 持續性과 安全性이 결여되어 있고 변동이 심해 예측하기가 어렵다. 둘째, 公布하지 않은 「內部」規定이 대단히 많아 어떻게 따를 바를 모른다. 셋째, 規定의 상화 모순과 혼란으로 地方法規와 中央政策이 상호 긴말할 수가 없다.<sup>8)</sup> 분명히 이것은 兩岸 經·貿關係 발전에 걸림돌이

6) 唐培, 「臺商 投資區 設立의 作用」, 經濟導報, 1990년 10월 1일, p.25.

7) 經濟部 國貿局, 「1989년 中共 經濟措置 및 對外貿易 情勢에 관한 研究·分析」, 民國 79년 10월, p.8. ; 文匯報(홍콩), 1990년 5월 30일, 제 1판.

8) 丘宏達, 「兩岸 經貿關係의 法律 形式」(大陸貿易과 投資에 관한 研討會 論文)(臺北: 21世紀 基金會), pp.14-17.

되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다.

## V. 經·貿關係 發展의 影響과 制限

兩岸의 經·貿關係의 발전이 쌍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는 줄곧 토론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兩岸 經·貿關係의 발전이 여전히 많은 해결할 수 없는 정치문제의 제한을 받고 있고 확실한 자료를 얻기가 어려운 까닭에 상당히 논쟁도 심해, 臺灣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할 때 의견이 더욱더 분분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兩岸의 經·貿關係의 발전은 大陸經濟에 다음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첫째, 中國大陸의 건설자금 부족을 완화시키며 둘째, 비교적 선진적인 기술과 관리경험을 끌어들이어 大陸 產品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셋째, 더 많은 就業機會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외무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兩岸 經·貿關係의 臺灣經濟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오히려 「國家安全」과 「經濟利益」의 복합적인 고려로 말미암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문제의 관건은 大陸市場과 資源의 지나친 의존으로 臺灣 産業의 空洞化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혹은 中國大陸이 臺灣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을 때 臺灣經濟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여 그들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게 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大陸經濟에 대한 의존도는 여러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兩岸 經·貿關係로부터 발생한 문제 중, 근래에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兩岸 貿易關係가 도대체 競爭關係냐 혹은 相互補充關係냐 하는 것이다. 몇몇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兩岸의 무역형태가 이미 「초기 산업형(initial-industry)의 상호보완형 무역」에서 점차 「산업내 경쟁형 무역」으로 나가고 있음에 따라 쌍방은 간접무역에서도 차츰 경쟁관계를 드러내고 있고, 아울러 中國大陸의 臺灣에 대한 經濟制裁措置의 가능

성도 이로 인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sup>9)</sup>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논조에 대해 研究方法와 實際狀況을 통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進一步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sup>10)</sup>

臺商의 大陸投資가 臺灣 산업구조·자본형성·노동취업기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록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對外貿易發展協會의 한 委託研究 결과에 따르면<sup>11)</sup> ; ① 臺商의 大陸投資는 勞力集約型에 속하고 臺灣에서의 수출도 이미 쇠퇴한 분야이며 원료가공방식으로 大陸에 투자되고 있어 臺灣産業의 空洞化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② 취업기회의 규모를 놓고 볼 때 臺商의 大陸投資로 감소하는 취업기회는 아주 많아야 1만 8천 9백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 ③ 무역량에 있어서는 약 3억 9천만 달러로 1988년 臺灣이 간접무역으로 大陸에 수출한 액의 17.4%에 불과하다.

한편 정치환경의 制約으로 인해 兩岸의 經·貿關係의 발전 특히, 投資關係는 기본상 여전히 초기 발전단계에 머물고 있어 兩岸 경제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초부터 불기 시작한 「大陸熱風」으로 말미암아 臺灣의 大陸정책에 대한 법제화와 仲介機構의 성립 및 兩岸의 밀입국자와 범인 인도에 대한 협조태도 등 이러한 兩岸 관계의 발전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1. 臺灣의 大陸에 대한 經·貿政策의 制限

「國家安危」 및 정치상, 결코 선의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中國大陸으로 말미암아 臺灣은 大陸과의 관계에서 부득이 「民間·間接·單方·漸

9) 葉新興·邱毅, 「大陸 商務活動의 産業에 미치는 影響 및 그 對應對策」, 中華經濟研究院, 民國 78년 7월, 邱毅, 「兩岸 間接貿易이 臺灣産業에 미치는 충격」, 臺北市銀行 月刊, 제 21권, 제 1기, pp.4-32.

10) 參照 嚴宗大, 「兩岸 經貿關係와 我國의 大陸 經貿政策」(中華戰略學會 學術研討會에 제출한 論文), pp.7-8; 李華夏, 「臺灣海峽 兩岸의 經貿關係의 反省」(中國大陸研究學會 學術研討會 論文), pp.4-60.

11) 中華經濟研究院, 「大陸 投資環境 및 兩岸 潛在 投資關係에 관한 研究」(臺北: 中華經濟研究院), 民國 78년 10월, pp.92-103.

進·安全」의 원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經·貿政策에 있어서도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것은 臺商의 大陸 經·貿活動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間接」과 「許可」를 주요 원칙으로 삼는 對大陸 投資政策이 政府로 하여금 對大陸 經·貿活動을 충분히 장악하게 할 수 있을지? 臺商이 정부허가없이 제 3국 혹은 제 3地區를 통해 大陸에 투자하거나 무역하는 것을 과연 방지할 수 있을지? 국가가 정식으로 大陸에 투자를 허가한 상품항목이 과연 國內生産時 比較利益과 國際競爭力을 고려할 수 있는지? 이 모두가 장차 兩岸의 經·貿關係 발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간접무역 관계로 하여금 상당한 시련에 직면케 할 것이다.

## 2. 國際環境의 影響

국제 정경환경의 악화 또한 兩岸 經·貿關係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대체로 세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東區의 變局과 蘇聯의 改革은 국제정세의 향방을 바꾸어 놓았다. 이들은 원래 봉쇄된 시장이었으나 대외개방을 표방하고 부터 臺商들의 투자선택 기회는 더욱 다양해지고 증가되었다. 둘째, 東南亞 國家들은 臺商投資를 끌어 들이는데 있어 줄곧 大陸의 강한 경쟁 상대국이었다. 과거 몇년간 臺商들이 동남아와 大陸에 투자한 비율은 5:1이며 臺灣은 많은 동남아 국가 중에 제 2위의 투자국으로 일본 다음이다. 臺商投資를 끌어 들이는데 있어, 大陸은 비록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同胞'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현재 兩岸의 政治關係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재 臺商의 大陸投資는 「臺灣에서 주문을 받아 大陸에서 가공하여 홍콩을 통해 간접수입한 후 臺灣에서 재가공해서 海外로 판매」하는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臺灣에서 또한 臺商이 大陸에 가공을 위탁하거나 혹은 반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간접무역 형식으로 臺灣으로 돌려 판매하는 조치도 허락하였다. 이것은 당연히 臺灣의 상품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兩岸의 무역액을 증가시켰지만 이런 종류의 合作方式은 원래 政策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장차 兩岸 經濟關係 發展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3. 大陸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障礙

사실상 兩岸 經·貿關係 發展의 최대 장애는 中國大陸 政局의 不安定, 投資環境의 不健全 및 中國大陸의 中央執權制度가 자유세계와 경제왕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장애 등이 바로 그것이다.

1978년 부터 中國大陸이 經濟改革과 對外開放을 진행한 이래 中國大陸은 확실히 새로운 면모로써 국제정치 무대위로 출현하였지만 작년 「6·4 천안문사건」의 突發로 오히려 자유세계 인사들에게 쉽게 지울 수 없는 나쁜 인상을 남겨 놓아 장차 外資導入과 臺商投資를 흡수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大陸 投資環境의 不健全이 臺商들이 大陸에서 봉착하는 가장 큰 곤란이다. 즉, 외환부족이 심각하고 금융체통의 외환어음 수속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행정간섭이 지나치게 많은 등 모두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없는 문제로 장차 兩岸 經·貿關係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中國大陸의 경제개혁은 비록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상 여전히 自由經濟市場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中央執權의 經濟體制는 물자공급과 임금수준 등에 엄격한 중앙통제를 하고 있고 더욱이 對外貿易面에 있어, 中國大陸은 항상 政府補助와 制限措置를 취하고 있어 臺商으로 하여금 大陸과의 經·貿往來를 진행하는데 결코 自由經濟의 公平原則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中國大陸은 經濟改革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허다한 개혁조치들이 영구적이다 혹은 임시적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바로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이 줄곧 中國大陸의 入會申請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中國大陸과 國際經濟體制간의 융합을 막고 동시에 兩岸의 進一步한 經濟合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VI. 結 論

정치학자 Donald, J. Puchala의 이론에 따르면, 「整合」이란 일종의 「領土·政府·政治·經濟·社會와 文化 등의 多層面的인 融合過程」이다. 한편 經濟領域으로 말하자면, 경제학자 C.P. Kindlerger와 P.H. Lindert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經濟整合은 「商品市場·共同的 生産要素 市場 혹은 兩者의 결합을 통하여 生産要素價格의 均等化를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整合의 過程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여긴다. 통상적으로 合作(Co-operation)·統合(Co-ordination)과 完全整合(Complete Integration)의 3단계로,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整合에 가장 근접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兩岸의 經·貿關係가 날로 밀접해 지고 국제간에 있어서도 地域經濟合作이 성행 할때, 국내의 학자들은 일찌기 다음과 같은 구상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中華聯邦」, 「大中華 共同市場」, 「中國經濟圈」, 「臺灣實驗特區」 등으로써 兩岸 經·貿問題를 해결하고 나아가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구상들은, 복잡 다양한 정치문제는 덮어두고 經·貿合作으로써 起點을 삼아 兩岸의 整合을 태동시키려는 의도이지만 兩岸關係는 여전히 진일보한 완화를 기대할 수 없고 또한 實現條件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구상들은 단지 학술계에 한차례의 열띤 토론만 야기시키고 스스이 가라앉고 말았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兩岸 經·貿關係 발전의 최대 걸림들은 政治要素의 制限에 있다. 비록 과거 10년간은, 兩岸 經·貿政策의 相互作用으로 말미암아 經·貿關係의 기초를 확립했지만 經·貿 상호작용의 과정 중, 雙方은 經·貿交流를 위해 한계를 설정하거나 혹은 정치성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經貿發展의 중대한 걸림들을 형성하고 말았으며 아울러 항상 「統獨」「主從」의 논쟁속에 빠져들곤 한다.

兩岸이 모두 「하나의 中國」을 주장함과 동시에 歷史 文化交流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한, 당연히 그 整合의 動力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政治權力 意識形態와 制度 등의 차이를 놓고 볼 때 雙方은 「整合」과 정중 비교적 초보적인 合作關係에 놓여 있어 장차 많은 곤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兩岸은 마땅히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사무적인 實際問題로부터 착수하며 점진적으로 미래의 進一步한 整合을 달성토록 해야 한다.